

인간과 하천

6

River & Culture



김정현 | 동화작가
(4201700@hanmail.net)

하천과 동화

물방울 형제

동화를 들려주는 시간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.

「하천과 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요?」

하천은 시내를 말합니다. 골짜기나 들판에 물이 흐르는 물길의 폭이 넓지도 않고 또 물길의 깊이가 별로 깊지도 않는 물길을 시내라고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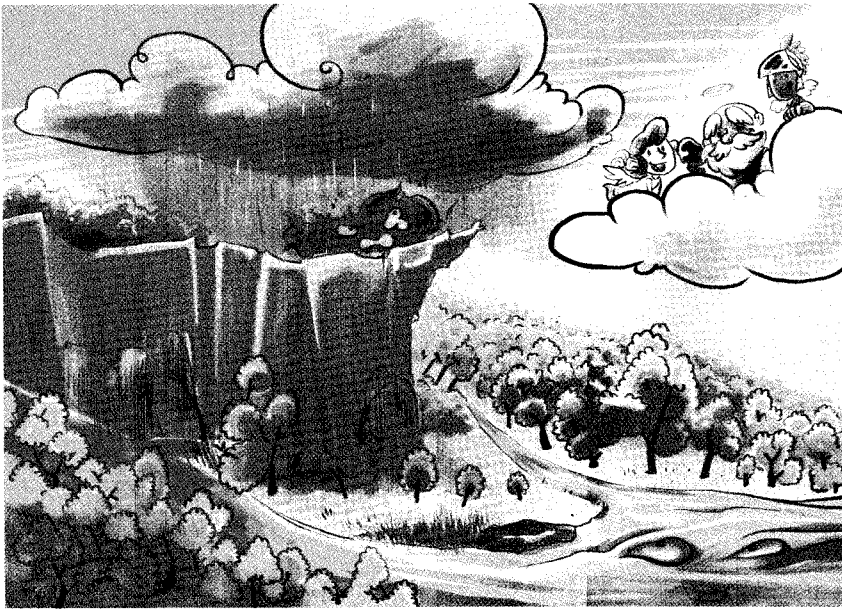
강은 시내와는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. 바로 여러 곳의 시내가 모여서 이뤄지는 큰 물길입니다. 그래서 폭이 넓고 깊이도 깊습니다.

이러한 하천과 강이 어떻게 하여 생겨났을까요? 하는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.

이 말씀에는 과학적으로 대답하게 하는 그런 뜻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. 동화 속에 나오는 하천이랑 강 이야기로 어떻게 해서 하천과 강이 생겨났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.

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동화 속 하천과 강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.

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물과 불이 있었습니다. 둘은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는 아주 강한 것이었습니다. 그런 그들은 거만하고 거칠고 사납기가 대단하였습니다. 불은 화라도 나면 온갖 것을 다 태워버리고 물은 화가 나면 온갖 것을 다 쓸어버리고 하여 남는 것이 없게 하였습니다.



불이 잔뜩 화가 나서 돌아다니면 나무랑 풀이랑 온갖 아람 다운 꽃이 다 타버립니다. 물이 씩씩거리며 화가 나서 돌아다닐 때는 땅이 파헤쳐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강아지랑 고양이랑 병아리들이 휩쓸려 떠나려가고 땅바닥에 붙어사는 작은 곤충들이 물속에 푹 잠겨 숨도 못 쉬고 죽고 합니다.

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나쁜 광경을 한 두 번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. 여러 번 본 것입니다. 하늘나라에 있는 하느님도 본 것입니다. 그래서 하느님은 물과 불을 보고 너희들은 절대로 화 같은 것을 내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기도 하였습니다.

그러나 물과 불은 듣지 않았습니다. 계속 제 멋대로 성질을 부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였습니다.

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. 하늘을 다스리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의논하는 신들의 회의였습니다.

그 가운데 한 신이 말했습니다.

「구름더러 저 아래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합시다.」

다른 한 신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.

「불은 어떻게 하죠? 우리가 불을 내려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별주기가 어렵지 않은가요?」

이 말에 다른 또 한 신이 말했습니다.

「그거야 구름더러 비를 쫓아 내리게 해 꺼 버리면 되지 않아요.」

그렇습니다. 불은 물한테 쫓잡 못 합니다. 물이 불 위에 쏟아지더라도 하면 금시 꺼져 버립니다.

첫 번째로 말한 신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찬성을 했습니다. 두 번째로 말한 신은 고개를 저으며

「그건 말도 안 돼. 비가 물이 되는 건데 불 끈다고 비를 내리면 물은 되레 보태어지게 아닌가?」 하였습니다.

하늘을 다스리는 제일 높은 신이신 하느님은 그 말에

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리고 말하였습니다.

「비를 내리면 물이 더 불어나는 수가 있는데 불이 날뛰는 행패를 막는 좋은 방법은 불 그 자체는 누가 옮겨 주는 일이 없으면 언제나 처음부터 있던 그 자리에 있게 하는 별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. 그래도 저 아래 세상은 불이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영영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.」

하느님의 말에 모든 신은 찬성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 불은 스스로는 쫓잡도 못하고 한 자리에만 늘 머무는 것이 되었습니다.

그런데 물은 어떻게 되었느냐구요?

물은 꼭 물만이 다닐 수 있는 길 밖에는 못 다니게 하는 별을 하늘에서는 내렸습니다. 물이 적을 때는 좁은 길로 다니게 하고 많을 때는 넓은 길로 다니게 하는 별이었습니다.

물이 아무리 화가 나서 날뛰어도 그 길 이외는 절대로 못 나가게 하는 큰 별이었다고 하며 예전처럼 들판을 맘대로 휩쓸고 다니지 못했습니다.

하늘에서 이런 별이 물한테 내려진 것이 바로 하천과 강이었던 것입니다. 이렇게 된 후에 하천과 강가에는 무성한 갈대랑 온갖 풀들이 모여 오순도순 평화롭게 살기도 했습니다. 🌍